

오늘의 주요기사

2023 2 6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3				1
강원도민일보			"2024	"	2
江原日報	03	500			4
강원도민일보	09	"	,	'	5
강원도민일보	09	"	'	'	6
江原日報		[]2023		7
강원도민일보			.		8
강원도민일보	04	,	'	'	9
江原日報		-			9
江原日報	14				10
江原日報	10A				10
江原日報		[]		11
江原日報	10				11
江原日報		[]	,	12
강원도민일보	21			...	12
			, 2023		13
강원도민일보	14	[]		15
강원도민일보	14	[]		15
한국농어민신문			20 , 21	.	16
			40		17
LG			'20 '...	'	19
강원도민일보	01	.	,		20
강원도민일보	03	4	'	'...	21
江原日報	01				22
江原日報	03				23
강원도민일보		"	,	...	24
강원도민일보	04	'	'	...	25

강원도민일보		,		가		25
 KBS 춘천			5	26
 MBC 강원영동		,		8		27
강원도민일보		“		”		28
강원도민일보	23	[]	,		29
江原日報	19	[]	,		30
강원도민일보	23	[]			31

2023 02 06 ()
03

江原日報

청년 당원 뭉쳐 총선 승리 결의...

국민의힘 도당 청년위 발대식

청년 정치인 발굴·육성 활성화
유상범 의원 “선거 필승 첫발”

국민의힘 강원지역 청년 당원들이 뭉쳐 총선 승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김필수)는 지난 3일 발대식을 갖고 수석부위원장 6명, 부위원장 26명을 임명했다. 지난해 도당 조직 개편에 따라 구성된 청년위원회가 출범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당의 총선 시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도당위원장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국방위원장,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을 비롯, 전국 시·도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청년위원회 출범에 힘을 실었다.

도당은 청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청년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정치 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3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박승선거자

대식에서 김필수 청년위원장은 “청년 당원들을 한 팀으로 모아 내년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유상범 도당 위원장은 “오늘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첫 출발을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청년위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를 내년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힘차게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진운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청년정치의 중요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 김 전 최고위원은 “청년정치학교 등을 정당 차원에서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정치적 역량을 길러주고 정당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 최고위원이 돼 강원도 청년들이 낸 의견들이 당정책의 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당원들이 정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하늘기자·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위 "2024총선 승리 위해 뛰겠다"



▲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필수)가 3일 춘천 강원도당사에서 청년위 발대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한팀'이 돼 뛴 것을 약속했다.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필수)는 3일 춘천 도당사에서 청년위 발대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발대식엔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 한기호·노용호 의원, 이기찬·김기홍·박기영·박대현·김진호·이재용·박노일·유환규 의원과 정선자·원선녀·이미옥·진우엽·최성현·김혜란·황경화·유호규·이영욱·손원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했고, 최정승 충남도당 청년조직본부장, 이창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엄기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허진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대식을 축하했다.

유상범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첫 출발을 이자리에서 한다"며 "청년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뛰어보자"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당의 미래는 젊은 분들에게 있다"며 "함께 더 많이 우리당을 튼튼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다. 노용호 의원은 "27년 전 도당에 왔을 때 사무처 당직자로서 청년위원 형님들과 일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며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김필수 형님은 당시 (선거) 청년팀을 구성했던 당사자로, 앞으로 청년위도 청년친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청년최고위원이 되면 청년당정대협의회를 만들어 춘천, 속초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협의회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강원도당 청년위원장은 "오늘 이자리에서 임명받은 분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저를 도와서 정말 열심히 해줄 분들"이라며 "청년들을 한팀에 모을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다. 자신감, 열정, 패기가 대단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필수)가 3일 춘천 강원도당사에서 청년위 발대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정호

'청년 정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는 "청년조직으로서 몇 명을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끝났으면 안된다"며 "당에서 활동한 청년들이 정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이 우리 당의 주인이 되는 날을 기대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갈 분들이 여기계신 청년위원분들"이라고 했다. 또, "유상범 의원은 제가 믿는 친구이자,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어린 시절 영월 모운동에서 자란 강원도 일원으로서 강원도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부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앞장 서달라"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총선 승리를 함께 손잡고 이뤄내자"고 전했다.

이날 임장균·서영일·김민수·김홍섭·김경환·홍의진 씨가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부위원장에는 홍이진·최희승·이규석·장현성·최성기·차주형·정병하·유민호·이두환·박현민·전찬일·함은균·전병주·김성태·우재명·박성철·장재훈·안성호·박근호·김일수·홍영숙·김현갑·박형호·김연성·김종범·한선호 씨가 선임됐다.

대정부 규탄대회 500여명 상경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역 당원
‘민생파탄 검사독재 성토’ 집회
송기현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

속보=더불어민주당 강원지역 당원 500여명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본보 지난 2일자 3면 보도)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6년 만에 실시한 국회 밖 장외투쟁이다.

이날 도내에서는 김우영 도당위원장과 송기현(원주을),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성(춘천-철원-화천-양구을), 원창묵(원주갑), 한호연(동해-태백-삼척-정선), 박상진(속초-인제-고성-양양), 김주환(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당원 등 500여명이 상경했다. 앞서 중앙당이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했고 도당의 경우 원외지역위원장 다수가 참가하면서 상경 규모가 커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송기현·허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당원 등 500여명은 지난 4일 서울 송례문 일대 세종대로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현역 의원 10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 2만명, 민주당 추산 30만명이다.

김건희여사주가조작진상조사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은 이날 단상에 올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넘게 등장하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사회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는 위기고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 등 민생도 위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어떤 핏박에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집회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방탄 집단농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06 ()
09

“요트투어 맘에 들어 기부, 지역 ‘방문형 답례품’ 발굴 필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의제로 한 전국 첫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지와 강원도, 도민회중앙회의 새해 공동기획인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캠페인과 연계한 첫 공론화의 장(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관계·생활인구 관계 구축과 함께 요트 투어 상품권 같은 방문형 답례품 다수 발굴, 민간 차원의 기부로 진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매월 기부예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실는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명선 도행정부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도·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매월 기부액 공개해 ‘투명 운영’ 인증 자발적 기부 유도”

토론

◇토론

△장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총장
 △윤우영 강원도 세정과장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장태수=“출향도민들의 고향 사랑의
 지와 실천이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의) 성공 요소라고 본다. 도민회중앙회
 는 국정과제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 지
 원한 경험이 다수 있다. 2018평창동계
 올림픽 당시에는 전국적인 봄 조성 활
 동, 강원도 주요현안 입법활동과 관련
 해선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도민
 회 각 회장단이 국회의원을 설득하며 입
 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국 지역도민
 회 사무총장을 회장으로 한 고향사랑기
 부제 서포터즈를 운영, 맞춤형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재경 회장단이 도내 각
 지역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민
 회는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와 함께 새
 해부터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고향
 사랑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연세가 많으신 출향도민들은 기
 부제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접속이 어려
 워 금융권 직접 방문을 제외하고 대체
 신청안이 있었으면 한다. 도민회는 강
 원도가 전국 최고의 기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윤우영=“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
 제 범국민 캠페인 추진해주고 계시는 강
 원도민일보에 감사인사 드린다. 또, 고향
 사랑기부제 서포터즈 활동해주시는
 강원도민회중앙회에도 감사드린다. 고향
 사랑기부제 도입, 한달을 맞았는데,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적
 으로 홍보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해서 기
 부금 운영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
 에 집중하겠다. 이어 3-4월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1회 추가 개최하고 시군 대표
 특산품을 재선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
 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특산물을 병합
 한 패키지 상품은 물론 특산물 관광을
 연계한 클레버 상품으로 답례품을 선정
 할 예정이다. 제도 성공 정착을 위해 주



장태수 사무총장 윤우영 과장 한창수 위원장 이형석 과장 현진권 원장

방문형 답례품 발굴 제공시 인접지역까지 여행 가능성 어르신 인터넷 불편 개선을 대도시권 대규모 홍보 중요

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18개 시·
 군과 공조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된 고견을 업
 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

△한창수=“고향사랑기부제는 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부금을 강
 원도와 각 시·군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
 에 쓸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투자해 주
 민과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를 생
 각해야 한다.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 가
 치를 느껴서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 각 지자체장
 들이 해내야 할 일이다. 더 투명하고, 더
 현명하게 기부금을 운용해 잘 쓰이면 기
 부액수가 더 많이 쌓일 것이다. 반면, 기
 부금이 부정하게 쓰이고, 사업에 실패
 하면 기부는 끊어지게 된다. 기부제 활
 성화,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더욱더 살기 좋은 강원이 될 것이다. 고향
 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각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직자들이 한마음을 모아
 야 한다. 각 지자체가 기부제를 홍보하
 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대도시권에 홍
 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하다.”

△이형석=“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
 전부만이 아닌 전국 각 지자체의 공동작
 품이다. 오늘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심
 포지엄이 제도 도입 후, 전국 처음인데
 첫 단추를 꿰어 주신 강원도민일보에 감
 사드린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마중물이어야 하고, 인구유인책이라는
 장기 목표를 기부제 도입 초기에 세워야
 한다. 기부자들에게 명예군민증·명예
 시민증을 발급, 로컬 맛집 할인 등을 통

해 지역을 찾도록 하는 관계인구·생활
 인구 관계를 구축, 향후 정주인구로 유
 인해야 한다. 특히, 기금사업도 주민복
 리 증진에 더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줘 재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인접 지자
 체 및 수도권과의 연대협력도 필요하
 다. 답례품 가운데 요트 투어 상품권이
 마음에 들어 강원도 속초에 첫 기부를
 했다. 답례품은 택배 보내고 끝난다. 기
 부자와 지자체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방문형 답례품이어야 한다. 요
 트 투어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택한 기
 부자는 강릉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강
 원도내 여러 도시들을 연계해서 다닐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고향사랑기부
 제 업무추진에 있어 고객지향적 여지사
 지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진권=“세금은 강제적이지만 기부
 금은 자발적이고, 경제적 재원이 된다.
 고향사랑 차원에서 기부금을 확보하고
 있다. 사랑, 좋다. 그런데 사랑은 대체로
 보면 머릿속에 있고, 표현하지 않으려
 고 한다. 그래서, 사랑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경쟁이다. 고향사랑
 을 알게 하는 절차가 바로 경쟁이고, 그
 령게 봤을 때 답례품 선정 역시 지자체간
 경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정책 자유인데, 고향사랑기부제도 똑
 같다. 18개 시·군이 정책 자율을 가진다
 는 얘기다. 답례품을 통해서, 기부확보
 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고, 저는 18개 시·군별 매월 기부
 액수를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되지 않느냐는 시각
 도 있지만, 그건 권위주의 시대 관(官)
 주도의 발상이다. 돈을 내는 사람은 개
 인, 국민이고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국
 가가 민간에 의해 발전한 사례가 있다.
 자발적 노동기부인 새마을 운동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
 2의 새마을 운동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정리/박지은·김덕형

2023 02 04 ()

江原日報

[포토뉴스] 2023년 양구군이장연합회 정기총회



2023



년 양구군이장연합회 정기총회가 3일 DMZ산림두드림센터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기찬 도의회 부회장, 이상진 군이장연합회장 및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5 ()

양구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이동명



▲ 양구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이 최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선목 군부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옥선 전 국토정중앙여성대장과 박원균 전 해안남성대장이 이임하고, 이소행 양구읍남성대장, 이순자 국토정중앙여성대장, 한대형 해안남성대장이 취임했다.

ldm@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2 06 ()
04

도의회, 도청노조 '베스트 의원 수상 거부' 공문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방안 요청

속보=강원도의회가 강원도청공무원 노동조합에 '베스트(Best) 의원 수상 거부' 의견(1월19일자 웹보도)을 전달했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최근 도청 노조에 '2023년 강원도의회 의원총회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이같이 전했다.도의회는 "집행부 소속 직원이 다수인 노조에서 '베스트

의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함은 물론 생산적 협력관계를 훼손해 강원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도의회는 도청노조에서 실시하는베스트의원 설문조사반대와 베스트의원 수상 거부를 의결했다"며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화

2023 02 05 ()

江原日報

동정- 김용래 도의원

김용래 도의원(강릉)은 6일 오후 1시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및 추진 상황 보고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2 06 ()

14



북삼동자율방범대 이전 개소식 동해시 북삼동자율방범대 이전 개소식이 5일 북삼동 현지에서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최재석 도의원, 안성준 시의원, 황복순 북삼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2 06 ()

10A



홍천향교 계묘년 도배례 홍천향교(전교:안상호)는 지난 3일 홍천향교 충효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묘년 도배례'를 진행했다.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회 한기호 국회의원 면담



신영길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장, 박찬홍 강원도의원, 김용갑·박제철·지승민 춘천시의원 등은 지난 3일 춘천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한 의원에게 우두 국제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소양8교 임기 내 착공, 북춘천역 신설, 공병여단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강북 유치 적극 추진 등을 건의했다.

江原日報



춘천시의원들 한기호 국회의원 면담 신영길 강원도청 강북추진위원장, 박찬홍 강원도의원, 김용갑·박제철·지승민 춘천시의원 등은 지난 3일 춘천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한 의원에게 우두 국제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소양8교 임기 내 착공 등을 건의했다.

2023 02 05 ()

江原日報

[포토뉴스]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월대보름 음식 나눔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최규자, 민간위원장:김태영)는 지난 3일 심오섭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곡밥과 나물 등 정월대보름 음식을 만들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50여 가구에 전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6 ()

21



고성 현내면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축제

고성군 현내면 정월대보름맞이 제7회 주민화합민속한마당 축제가 지난 4일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송흥복 군의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을 다졌다.

2023 02 05 ()

횡성문화원, 2023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

이병완 기자

횡성군민의 무사안녕과 풍년기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우광수 횡성문화원장,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참석 내빈소개및 인사

[횡성=글로벌뉴스통신]횡성문화원(원장 우광수)은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2023년2월5일(일) 오후2시부터오후7시까지 횡성을 읍상리 전천둔치 일원에서 우광수 문화원장,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김은숙 군의원, 백오인 군의원, 한창수 도의원, 최규만 도의원, 전성택 군노인회장, 각급기관단체장과 문화원 임원 등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김명기 횡성군수,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참석 축하

이번 달맞이 행사는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한궁, 연날리기, 딱지치기, 떡메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재현 및 체험이 진행 되었고,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난타·한국무용·실버에어로빅·풍물놀이·국악공연 등 풍성한 무대공연도 진행되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횡성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전통 떡메치기 체험(사진 왼쪽 김명옥 군목련회장, 오른쪽 김영숙 군의장)

또한 노인대학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병행하여 전통민속놀이 계승과 노인대학별 친목 도모를 위한 교류의 장이 함께 마련 되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횡성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전통 풍물놀이 농악공연

특히 달맞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는 예년과 달리, 달 모양 LED조형물 점등으로 대체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광수 문화원장은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전통행사가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6 ()
14



송정동 2023 계묘년 강릉시 송정동민 무사안녕 기원제 및 신년 하례회가 최근 안목죽도봉에서 심교만 자치위원장, 조봉현 노인회장, 최승순 도의원, 이건령 송정동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6 ()
14



홍제동 2023 계묘년 강릉시 홍제동 주민 무사안녕 기원제가 5일 홍제동주민센터에서 심오섭 도의원, 최익순·윤희주·김현수 강릉시의원, 안미자 홍제동주민자치위원장, 김경임 동장을 비롯한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2 03 ()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홍천군연합회 제20대, 21대 회장 이·취 임식 진행

이우정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는 1월 20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2층 대강당에서 홍천군연합회 제20대, 21대 회장 이·취임식<사진>을 진행했다.

이·취임식에는 이웅재 한농연 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영록 홍천군의회 의장, 오흥수 홍천 부군수, 홍성기·이영욱 강원도의회 의원, 전성열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성진 신임 홍천군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농자재값 상승, 쌀과 한우가격의 과도한 하락 등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겨울이 깊어가고 어둠이 짙어간다는 것은 머지 않아 봄이 오고 날이 밝는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봄과 새벽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우리 농업이 어려울 때 어깨동무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홍천=이우정 기자 leewj@agrient.co.kr

특전사동지회 흥천군지회 창설 40주년 행사 개최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흥천군지회(회장: 박귀철)는 2월 3일 오후 6시30분 봉구네 고기집에서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흥천군지회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천군 오흥수 부군수, 박영록 군의장과 황경화, 김광수 군의원, 이영욱, 홍성기 도의원, 김종순 교육장, 강현오 안보단체협의회장, 이효식 흥천군재향군인회장, 임태현 특전사동지회 도지부장 및 시군 지회장,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40주년 기념행사는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흥천군지회의 40년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표창장 수여, 특전동지회 연혁보고, 환영사, 축사, 떡케익절단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4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헌신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강원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박귀철 지회장에게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홍승희 사무국장에게 국회의원 표창, 우영철 고문과 박기태 감사에게 군수 표창, 팽행목 회원에게 군의장 표창을 각각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귀철 지회장은 "1983년 1월에 창설한 홍천군지회는 지난 40년 기간 동안 지역 사회봉사와 각종행사 지원, 자연보호활동, 산불감시,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등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홍천군지회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LG

강원 떠나는 '20대'...청년 정책 '있으나 마나'

전소연

[앵커]

20대들의 '탈강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5년 뒤에는 강원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고령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유출을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CG IN]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연령대는 1020세대.

특히 20대에서만 3천 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CG OUT]

20대가 강원도를 떠나는 원인은 '구직'으로 지목됩니다.

강원지역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의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20대 유출이 심각하지만 현재 인구 정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인구 대책 540여 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출산·육아 관련 정책입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그나마 지자체가 내놓은 사업들도 천편일률적이거나 효과가 없습니다.

원주 동해시가 시행 중인 행복일자리 사업, 평창군의 마중물 일자리 사업 등은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격증 취득 수당, 청년 취업 수당, 취업박람회 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실제 취직으로 연계되지 못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을 그런 일자리,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거죠."]

20대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용래/강원도의원: "청년정책을 강원도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혜택이고 청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미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

이대로라면 15년 뒤에 강원도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전소연입니다.

전소연 jsylv@lghv.net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한 시의 전망

독특한 위치·풍부한 자원, 평화로운 세상 상징될 것



‘챗GPT’에 강원특별자치도 질문 5초 내 답변문장 구사 거의 완벽 ‘강원 미래발전 영향 주는 요소 대북관계·관광·지정학 긴장 등’

“강원도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챗GPT’ (ChatGPT)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최고 수준의 완성도로 세상을 놀라게 한 최첨단 인공지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과제를 어떻게 분석할까.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발의를 앞둔 5일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소인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과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영문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독특한 지정학적 요소를 가진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 혹은 기대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강원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4가지 요소로 △대북관계 △관광 △지정학적 긴장 △경제발전 등을 꼽았다. 대화창에 질문을 쓴 후 5초도 채 걸리지 않아 완벽한 수준의 문장 구성력으로 내놓은 답변이다.

챗GPT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는 북한과의 근접성,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 등 다양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이들 요소로 나눈 분

석을 이어갔다. 챗GPT는 가장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꼽고 “강원도는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는 유일한 한국의 지역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 잠재적인 미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은 관광이다. 강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야외 활동 기회는 강원도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든다. 미래 강원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지정학적 긴장도 영향을 줄 요인이다. 북한이나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곧 강원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원 경제의 경우 농업, 제조업, 관광업 등 산업 변화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미래는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특한 위치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만큼 한반도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유일한 분단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의 이력을 넣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 자세한 예측을 주문했더니 “강원도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챗GPT는 “두 개의 뚜렷한 정치 체제가 이처럼 가까운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점에서 강원도는 국제적 성공개최한 경험도 핵심 요소다. 국제 스포츠행사의 중심이자 경제 성장 촉진에 도움될 스포츠 및 관광 인프라의 주요 투자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더 큰 범위의 경제·문화적 교류기회를 통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인공지능 대화봇 ‘챗GPT’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챗GPT의 답은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이어서 놀라웠다.

한반도 상황에 따라 잠재적 안보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강원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정치·경제·문화의 복합적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독특한 위치와 최근의 경험은 유망한 미래를 위해 잘 포지셔닝 될 것”이라고 답을 마무리했다. 인공지능이 5초만에 내놓은 강원도의 미래, 국회에서 만들어질 법안에 어떻게 구현될지 더욱 주목하게 된다. 김여진 >관련기사 3면·영문 원본 kado.net

◇미니해설 챗GPT=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해 공개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 대화창에 입력하는 텍스트에 따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는 물론 방대한 보고서 작성, 코딩 등이 가능하다. 2달여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며 급부상, 파괴력이 커지자 네이버, 구글 등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밝히는 등 AI 시장의 무한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2023 02 06 ()
03

강원도민일보

강특법 4대 규제 ‘선택과 집중’... 논의 장기화 특례 일단 제외

<환경·산림·군사·농지>

오늘 허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당초 181개→130여개로 압축
예산권 확대 현안 추후 논의 전략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이 6일 대표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군사·농지 4대 규제 개선 주요내용이 상당수 담겼으나 정부 각 부처와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사업특례는 제외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에 앞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는 특례는 다음으로 넘긴 것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담은 조문은 당초 도가 마련한 181개에서 130여개로 압축됐다.

사업특례 관철을 위해선 범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자칫,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어 사업 특례 및 이와 연계한 특구 조성 등의 조문은 제외됐다.

민원사무와 직결되는 광업사무이양에 관한 특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접경경계특구 조성도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접경경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

■ 환경·산림·군사·농지 4대 규제 개선

- 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등
- 산림
산지관리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백두대간·민북지역 등 보호지역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 등

- 군사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접경지역 민통선 조정 등에 관한 특례 등
- 농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 국제교육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 미래산업 육성 등

제특구는 내·외국인 투자사업까지 총 망라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10여 개 이상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와 논의해야 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등 발행에 관한 특례, 보통교부금 추가 보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특례 등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교부세, 교부금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각 기준에 따라 배정받는 체계인 만큼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예산권 확대 현안 역시 추후 논의한다는 전략이다.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도 이같은 이유로 제외한다. 각 사업특례를 밀어내고,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군사·농지 4대 규제 개선 주요안이 대다수 포

함됐다.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에 규정된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특례, 산지관리 권한이양 특례, 백두대간·민북지역 등 보호지역 규제완화 특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특례, 접경지역 민통선 조정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특구 지정도 포함됐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권한 이양을 중심으로 조문을 압축했다”며 “범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특례 조문은 정부 지원위를 통해 협의, 단계적 발의를 통해 관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지은

江原日報

2023 02 06 ()

01

여야 의원 대거 공동발의 강원특별법 통과 청신호

〈전부개정안〉

민주 의원 36명·국힘 33명 동참
오늘 제출 때까지 100여명 전망
도·도내 의원 전사적 노력 성과

속보=130여개 조항이 담긴 ‘강원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70명에 달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동참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본보 지난 1일자 1·3면 보도)한 지 나흘 만에 총 69명의 국회의원(3일 기준)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6명, 국민의힘 33명이다.

우선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해(원주갑), 노용호(비례·춘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 의원과 송기현(원주을), 김병주(비례) 의원 등 강원 지역구 및 연고의 국회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지성호, 이용 의원도 함께했다.

여기에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오영환(민주당), 임호선(민주당), 정우택(국민의힘), 조은희(국민의힘), 김용관(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최강욱(민주당), 조수진(국민의힘), 전주혜(국민의힘) 의원도 서명했다. 전북지역의 한병도(민주당), 김윤덕(민주당), 정운천(국민의힘) 의원도 동참했다.

이 같은 인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수로, 대표발의자인 허영 의원이 6일 오전까지 더 많은 의원을 동참시킨 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서명의원 명부와 함께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최종적으로 공동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1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친전을 보냈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같은당 전체 원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강원도당위원장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서명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친분있는 의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또 김진태 도지사도 친분관계가 두터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 02 06 ()

03

김 지사 국방장관에 접경지 현안 해결 요청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도 논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국방 분야 특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와 이 장관은 접경지역 군(軍)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수의계약 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강원도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로 추진 중인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 허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규제개혁 차원의



◇김진태 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국방부의 입장과 실제 예하 부대의 작전상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앞으로 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軍)이 무단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 예산으로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 배석한 국방부 담당 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또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2023 02 06 ()

강원도민일보

김진태 지사 “국방부, 접경지 군납 수의계약 유지 협조 요청”

박지은

이종섭 장관 첫 만남 조정방안 논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 특례 검토



▲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3일 국방부를 방문,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태 도지사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국방부를 방문, 접경지역 현안 및 국방부와 조율해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긴 국방부 소관 특례 등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 허용) 방안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 등이다.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등에 대한 강원도 건의에 대해 국방부는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군(軍)에서 무단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확대해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에 대해 도와 국방부는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간담회에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박지은

pje@kado.net

2023 02 06 ()
04

강원도민일보

도교육청 '유보통합' 시동... 교사 자격요건 갈등해소 관건

교육부 선정 선도교육청 도전
돌봄기능 확대·시설개선 논의
유치원·어린이집 온도차 과제

유아교육·보육 분리로 강원도내 교육
계가 수년째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 신청에
나서 유·보통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
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보통합 추진방
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교

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
각 담당해 운영하던 유아교육·보육 관
리체계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
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
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
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선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
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진행,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선도교육청 선정에 도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3월 예정된
선도교육청 수요조사에 신청하려 한
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등 지원항목
통합, 돌봄기능 확대, 안전기준 및 시
설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교사 처우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선도교육청 신청을 통해 그간
담당 정부 부처가 달라 여러 차례 유치
원과 어린이집의 갈등을 겪은 강원 교
육계가 해결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강원도는 유아교육·보육 분리의 지
격탄을 맞아왔다.

지난 2016년 강원도교육청은 어린

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며 도의회와 대립했고, 최근
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학
부모 부담금 지원을 두고 도내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형평성을 문
제삼으며 반발했다.

정부가 유·보 통합에 나섰다지만 과제
도 적지 않다. 강원 교육·보육계가 가
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다
른 과정을 통해 자격을 얻은 유치원 교
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한 직군으로 묶
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임
용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일정 수
준의 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치면 자격
을 얻는다.

원주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이 다르
다"면서 "이를 통합하면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미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자격을 놓고 유치원의 반대가 심한
데,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교사
들이 추가로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답
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2023 02 05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이중고 겪는 축산 농가 경영안정 지원 나선다

김덕형

강원도가 사료값 폭등과 한우 가격 폭락 등 이중고를 겪는 도내 축산 농가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도내 조
사료 자급기반 확충과 이용성 향상, 부존자원 활용에 총 137억원을 투입한다. 한우 가격 하
락과 사료값 상승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안정적인 조사료 지급 기반 확충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지원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유희지 활용 △품질 검사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정 추진 4개 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한다. 또,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에 33억원을 투입해 조
사료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이용 지원에 19억원을 지원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2024년부터 개방되는 조사료 수입 시장과 한우 가격하락, 사료비 상승 대
응을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 및 유통체계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duckbro@kado.net

2023 02 03 ()

KBS 춘천

철도 역세권 개발 공조...화천·고성 등 5개 군 참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어제(2일) 도청에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5개 군 지역 담당자들과 함께 역세권 개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도시에 비해 투자 여건이 불리한 군 단위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지역 맞춤형 개발 계획도 마련해,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고순정

2023 02 03 ()

MBC 강원영동

문화재청, 강원도 민속행사 8건 지원

홍한표

문화재청이 올해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에서 펼쳐지는 민속행사를 지원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8건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사업 20주년을 맞아 고유한 민속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척 갈전리 당숲의 서낭제를 비롯해, 도계 영등제, 궁촌리 단오제 등 삼척 지역에서만 3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또, 8월에 열리는 태백 한강 발원제와 10월 강릉 소금강 청학제도 올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3 02 06 ()

강원도민일보

“달에 새긴 소원 활활” 도내 곳곳 대보름 행사 풍성

김진형

본지 후원 영월읍 대보름한마당
춘천문화원 달집태우기 등 다채



▲ 5일 춘천 공지천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2023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서 시민들이 달집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김정호

5일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강원도내 곳곳에서 풍년·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삼척 정월대보름제’가 3~5일 삼척 일대에서 성황리에 진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가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재연됐다. 강릉 ‘건금마을 용물달기’도 성산면 금산2리 임경당 우물터 일원에서 3년만에 옛 모습대로 펼쳐졌다.

춘천문화원은 5일 공지천 광장에서 달맞이 축제를 개최, 자신의 나이만큼 짚단에 실을 묶은 뒤 소원을 비는 달집태우기를 진행했다. 춘천 사암리농악보존회는 지난 4일 제1회 대룡공지어놀이를 개최, 대룡산 샘굿으로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다.

영월군도 이날 동강둔치에서 정월대보름 및 단종대왕 신주봉정 행사를 가졌다. 강원도민일보사가 후원하고 영월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한 ‘나눔과 채움의 행복한 대보름한마당’은 지난 3~4일 영월읍 덕포문화시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횡성문화원은 교항리 전천둔치 일원에서 달맞이 행사를 5년만에 정상 개최했고, 양구문화원 주최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는 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정선 여량면의용소방대는 염장봉에서 소금단지를 묻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염장봉 제례를 봉행했고, 홍천 수타사와 수타사신도회도 척사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3일에도 평창군민속보존회 주최 지신밟기가 8개 읍·면 민속보존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고, 철원군의 지신밟기 행사는 군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양양문화재단도 지난 4일 설악해변에서 3년만에 대보름 행사를 가졌다. 고성 죽왕면 야촌리에서는 강건영 죽왕파출소장이 소머리를 기증해, 대보름맞이 소머리국밥 주민 잔치가 열리기도 했다. 김진형·유승현

formati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2 06 ()
/ 23

고령층 유입, 실버산업 기회로

-3년 동안 3000명 이상 전입... 정책 전략 필요

강원지역 인구 순유입이 4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인구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청년층 타지 유출이 계속되고 60대 이상 연령층 유입이 늘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지역 인구비중의 불균형이 심화해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폐광지와 접경지는 젊은 층 유출로 지역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유입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층이 인구증가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층의 여가와 복지 욕구를 실버 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규모를 키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인구 유입 증가는 좋은 신호로 평가합니다. 지난해 강원지역에 전입한 인구는 19만 4864명에 이릅니다. 전출 인구보다 많아 7494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이동률은 0.5%로 세종, 인천, 충남 다음으로 높아 향후 인구 증가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만 지난해 강원도 20

대 순이동자는 -2672명으로 전년(-4574명)에 비해 유출이 줄었으나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청년 인구 전출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유입은 최근 3년 동안 3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전년보다 1359명(68.8%) 늘며 처음으로 3000명대를 진입했고, 2021년 3703명, 2022년 3622명으로 강원지역 인구 순유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유입 증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에 이르고 있어, 60대는 사실상 장년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로 이전하는 60대 이상은 왕성한 소비활동을 할 경제력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노인층의 전입은,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고급 요양 산업과 의료업을 성장시키고 건설·건축업 활성화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 관련 헬스케어 사업, 문화, 복지, 레저, 심부름, 취미, 창업 등의 산업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노인층 전입과 고령화 추세에 맞춘 복지 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 산업 부양 정책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오늘 발의, 원안대로 통과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에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올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가 포함된 법률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부처 설득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조항, 특례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통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위만 인정하는 23개 조항만으로 출범해야 한다. 도는 올 4월까지 여야의 지지를 받아 법 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어 온전한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 분야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접경지역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거미줄 규제를 참아 왔지만 지금은 인구소멸, 취약한 재정자립도, 산업구조의 불균형, 중복 규제, 일방적 국방개혁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는 최근 공동 발굴한 특례 법안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김 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했다. 당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반드시 접경지역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맵을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비단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다. 강원도는 수십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 분야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여인 수많은 규제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

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는 강원도와 도민들의 손발을 쪼그라들게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를 일일이

**강원도 4월 법 제정 목표로 총력전 나서
도·지역 정치권 공조해야 가능한 일
여야, 법 취지 살리도록 협력해 주기를**

방문,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규제 특례와 전략 산업 육성·지역 개발, 관광, 행·재정 자율권 부여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은 바로 지난 100여년간 누적된 강원지역의 규제 혁파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자치도가 담긴 개정안이 제 모습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으로 법 개정엔 여야 및 정파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도 어렵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늬만 자치도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 수도권화

이수영 칼럼

논설위원



“멀리서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듣는 흔한 인사치레다. 춘천에서 광화문까지 승용차로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40~50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2시간 안팎이면 도착한다. 강남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이를 수 있다. 춘천과 원주권 대학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이고,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강원도가 변방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을 선입견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냉정하게 보자면 낙후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규제로 성장의 토대를 만들지 못했고, 청년 인구 유출은 고질적인 현상으로 굳어졌다.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다. 교육, 의료, 산업계 인력들도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 위기는 도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학 병원과 지역 의료원은 해마다 의사 충원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광지와 접경지역 공동화 우려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2024년엔 태백장성광업소, 2025년엔 삼척도계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는다. 이들 지역의 피해 규모는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56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난 1987년 당시 12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던 태백시 인구가 지난해 4만명 선이 무너졌다. 접경지인 화천의 경우 외지 순 이동률은 -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화천과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영월, 태백, 인제, 양양은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돼 지역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할 산업의 부재가 가장 큰 현안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비단 강원도만의 고민이 아니겠지만, 지역 경제를 떠받쳐 줄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 “강원도에는 공무원과 소기업 샐러리맨,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의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방안으로, 서울 경기 지역과 상생하는 ‘광역수도권화론’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자체의 발전 동력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의 산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서로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1982년 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경제

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 조치다. 대규모 공장 신규 허용과 공업 농업 시설 증가를 막고 있다. 인접한 강원도가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산업 시설을 유치한다면 공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된다. 관광·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 경기 지역 과밀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줄이고, 개발에서 뒤쳐졌던 강원도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다.

이 때문에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을 광역수도권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래 산업 국제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 시행을 통해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한편, 수도권 개발 제한의 출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통망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GTX 춘천·원주 연장과 동서고속철 2027년 정상 개통, 용문~홍천철도 개통과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 등 접근성을 강화할 철도·도로망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